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 도 자 료</b>		
	<b>배포일시</b>	2020. 7. 10.(금) 총 2매(본문2)	
<b>담당 부서</b>	국제항공과	<b>담당자</b>	• 과장 신윤근, 사무관 이호준, 주무관 홍창빈 • ☎ (044) 201-4211, 4210
<b>보 도 일 시</b>		2020년 7월 13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12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우리 기업인 출국 지원을 위한 한-중 항공노선 추가 운항

### - 국적사 최대 주10회(현재 주3회)까지 운항 확대 예정 -

- **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의 외항사 운항 제한조치 등으로 대폭 감편되었던 한-중 국제항공노선이 일부 복원될 예정으로, 그간 항공편 부족으로 출국에 애로를 겪어왔던 우리 기업체의 어려움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.**
  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지난 6.4일 중국의 운항 제한 완화조치 발표 이후 양국 항공당국 간 협의를 거쳐 현재 주당 10회 운항 중인 양국 항공노선을 최대 주20회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.
  - 이에 따라, 이번 7월부터 일부 노선에서 항공편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. 이번 항공운항 확대는 긴급한 비즈니스 수요, 현지 교민과 유학생 귀국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.
    - \* (운항현황) 양국 항공사가 8개 노선에서 주10회 운항(국적사 3개 노선, 주3회)  
→ (확대계획) 국가별 최대 주10회까지 운항 확대 가능(양국 총 주20회)
- 현재 한-중 항공편은 △인천-선양, △인천-창춘, △인천-웨이하이 3개 노선에 각 주당 1회씩 운항 중에 있으며,
  - 7.12일부터는 △인천-난징 노선을 추가로 운항하고, △인천-광저우, △제주-시안, △인천-선전 노선도 조만간 양국 항공당국에 운항 허가를 신청하여 4개 노선 운항을 개시할 계획이다.

○ 또한, 다른 노선(3개)에 대해서도 추가 운항에 대하여 중국과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운항을 개시할 예정으로, 양국 간 항공노선은 최대 10개까지 확대된다.

\* (항공사 취항절차) 중국 지방정부 방역확인증 획득 → 국토부 및 중국 민항총국 운항허가 신청 → 양국 운항허가 획득 후 취항

### 《 한-중 항공노선 추가운항 계획 》

구분	운항 노선 (각 주1회)	취항사	비 고
현재 운항 (3개 노선)	인천 - 선양	대한항공	지속 운항
	인천 - 창춘	아시아나	
	인천 - 웨이하이	제주항공	
추가 운항 (4개 노선)	인천 - 광저우	대한항공	7월 중 운항예정
	인천 - 난징	아시아나	7.12일 운항개시
	제주 - 시안	진에어	7월 중 운항예정
	인천 - 선전	에어부산	7월 중 운항예정

\* 추가 3개 노선에 대하여 중국측과 협의 진행 중

\*\* 중국 항공사도 추가 운항계획(최대 주10회까지 확대)을 양국 항공당국과 협의 중

○ 또한, 중국의 운항제한 완화 조치에 따라 특정 노선 항공편에서 양성 여객수가 연속 3주 동안 발생하지 않을 경우 양국 간 협의를 거쳐 추가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.

□ 한편, 국토교통부는 “공항·항공기 소독 등 방역 관리, 탑승객 및 항공종사자에 대한 감염증 예방조치 등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다”고 덧붙였다.

 <small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small>	 <small>홍치표시</small>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이호준 사무관(☎ 044-201-421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	---